

뿌리내리는 '지역법회'

도반끼리 신행...경조사도 챙기고 사찰 신도관리 장점 조직화 앞장

신도들의 동일 생활권별로 봉행되는 지역법회가 사찰 신도조직을 확대하고 체계화하는 포교 방법으로 정착되고 있다. 최근 봉은사가 강남권역 중심으로 운영하던 지역법회를 종로·강서·강북지역 등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것은 물론 조계사도 신도조직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법회 운영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등 도심 대형사찰을 중심으로 지역법회 운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역법회는 보통 구단위 또는 동 단위로 봉행되는 것 일반적으로, 한달에 한두번 같은 지역의 불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법회를 봉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지역법회는 사찰의 신도관리 및 조직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사찰을 중심으로 한 신도들의 결속력과 유대를 강화하고, 절에 처음 와서 낯설어 하는 불자들을 쉽게 아우르는 잇점이 있어 지역법회를 운영하는 사찰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사찰별로 '구역법회', '법동법회', '가정법회' 등으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 지역법회는 재일(齋日)기도에 그치지 쉬는 신도



◇도심의 대형 사찰들은 사찰 신도조직을 체계화 하고 신도들의 신행을 일상화 하는 포교방법으로 지역법회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사진은 강서구 화곡동 무루회의 가정법회 장면.

들이 신행을 일상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지역법회를 처음 도입한 사찰은 서울 송파구의 불광사. 25년전 신도조직을 체계화하기 위해 송파구내 불자들을 중심으로 지역법회를 운영하던 것을 지금은 서울·인천·경기지역을 포괄하는 42개 법동법회를 꾸려가고 있다. 서초구의 능인선원은 최대 규모의 지역법회가 운영되고 있는 사찰이다. 강남 1·2, 강북, 수도권 등 신도들의 거주지역을 크게 4권역으로 나누고 그 하부조직으로 1천개의 동단위 가정법회를 운영하고 있다. 매달 가정법회를 교재를 발간하고 있는 이례적인 사찰이기도 하다. 능인선원 가정법회는 주지 지광스님이 직접 쓰고 녹음한 <능인들불>과 교육 테이프를 중심으로 한달에 두 번 봉행된다.

가정법회 간사장 노병영도 보살이 있어 지역법회는 사찰을 중심으로 하나의 거대한 피라미드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사찰, 법회장, 일반신도 등 3각 구도로 짜여져 있어 사찰의 특별한 관리없이도 신도조직을 일사분란하게 가동하는 방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수법동, 관음법동 등 7개의 지역법동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법장사 주지 퇴휴스님은 "지역법회는 사람이 미처 신경쓰지 못하는 신도 개개인의 신행과 경조사를 신도들 스스로 챙기며 유대를 맺는 지역신앙공동체로써도 한몫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마음선원, 금강정사, 구룡사, 관운사 등 서울·경기지역 포교지역으로 자리잡은 사찰에서도 지역법회를 통해 자율적인 신도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복지·문화·환경활동 참여에도 크게 한 몫을 하고 있다.

도핀선 기자 (psdo@buddhania.com)

"아들 만날수 있다니...부처님 은덕"

조주경 김일성대 교수와 '8·15 상봉' 수도화 보살

"부처님, 감사합니다. 주지 스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17일 북한이 아들인 자신을 찾았다는 소식을 접한 수도화 보살(88·부산 내원정사)은 그저 감사할 뿐이다. 북측 이산가족 방문단에 포함된 조주경(68) 김일성대교수(88)의 아들. 50년 동안 가슴에 품어 오며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자식 한번 만나게 해달라'는 수도화 보살의 기도에 실현된 것이다.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듯하는 수도화 보살은 "아들을 만나면 눈물밖에 무슨 다른 말을 하겠느냐"며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고인다. 수도화 보살이 22살에 남편을 잃고 애지중지 길러오던 아들 조씨와 생이별한 것은 6.25전쟁 중에 아들이 인민군에 끌려가면서부터. 밥을 거머 공부에만 열중하던 아들이 대구 사범대를 졸업하고 장학금을 받으며 서울대 문리대 수학과에 다니고 있을 때였다. 출지에 아들을 잃은 보살은 백일동안을 서울을 못 떠나고 울며

아들을 찾아 헤맸으나 허사. 부산과 경북 영양의 친척집에 함께 살아오다 20년 전부터 내원정사에 머물며 아들을 위한 기도도 여생을 보내고 있다. 수도화라는 불명도 지금은 돌아가신 석암 큰스님이 주신 것. "밥이라도 제대로 먹으며 살아 있기를 기도했는데 대학 교수가 되었다니 오로지 부처님의 덕"이라고 연신 눈물을 흘린다. 오늘도 3시간 동안 법당에서 기도를 마친 수도화 보살은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2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금강경, 천수경을 독송하고 법당에서 자식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 "마상 아들을 만나고 싶어서 마음이 들뜨고 이상해 더욱 기도에 전념하게 된다"는 수도화 보살은 주경씨 대신 친아들처럼 수도화 보살을 보살피며 주위의 칭찬을 받고 있는 조주(67·서울씨)와 함께 8월 15일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부산·천미희 기자



효창동 원효사 앞 고층아파트 강행 '물'

조동종 총무원이 있는 서울 원효사(효창동 5-152 소재, 주지 학봉) 바로 앞에 10·13층짜리 대형아파트가 들어서게 돼 수행 및 신앙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원효사에서 6m 거리에 삼안공영(대표 김정국)이 6층 8층 10층 13층의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원효사의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되고 사찰의 내부가 들여다보여 기도 등 신도들의 종교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원효사 주지 학봉스님은 "사찰 환경을 지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숙 기자

국보법 폐지 국민운동 결성

실천승가회·불교인권위 등 8개 단체 동참 국민연대는 앞으로 3당 대표 면담(7월중), 국가보안법 사문과 선연운동, 6·15공동선언 이행 촉구 양심수 전원석방, 정치수배 해제 캠페인 등을 펼칠 계획이다. 이 단체는 고은시인(본지 논설고문)과 불교인권위 공동대표 한상범교수가 고문을, 실천승가회 의장 정화선과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스님이 공동대표를, 실천승가회 부의장 호림스님이 운영지도위원을 각각 맡았다. 김재경 기자

뉴스 & 뉴스

약수암, 파주 남골공원 조성 태고종 약수암(주지 해각)은 경기도 파주시 파주를 연봉3리 347-1 4천5백여평 부지에 남골공원을 조성하고 분양에 들어갔다. 1기에 1구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개인탑과 부부의 유골을 함께 안치할 수 있는 부부탑, 1기에 16구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가족 선산탑, 1기에 여러 가족의 유골을 공동으로 안치할 수 있는 합동탑 등이다. (031)952-4801 이경숙 기자

복지관 인터넷 환경 만들자 조계종 복지재단은 19일 복지재단 회의실에서 교계 복지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계 복지관 인터넷환경조성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 이날 복지관 인터넷 환경조성방법, 복지재단 서버이용 방안, 불교계 복지관 전산망 연대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인터넷 활용'에 대한 벤처기업가 초청강의도 진행됐다. 현영우 기자

일불선교종 범동수호대회 대한불교 일불선교종 해운·무공·해천·법성 스님 등 종단 스님들과 법사, 신도 등 5백여명은 18일 종로구 신영동 일불선원 법당에서 '종단법동수호'와 '일불선교종 범동수호'를 위한 전국 승려 및 법사 종도대회'를 봉행했다. 이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새단법인 재건 △1999년 12월 23일 이전 청송 총무원장 체제 환원 △현기홍 종정 불신임 △무공스님 복권 등 10가지 사항을 민중일치로 결의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종단법동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무공스님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선출했다. 이경숙 기자

기도하면 장수 종교가진 노인 사망률 50% 낮아

기도나 명상 등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듀크대 메디컬센터의 해롤드 페리코 교수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더행 지역의 노인 4000명을 대상으로 6년간 임상관찰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는 20일 교육이 같은 결혼이 나왔다고 유에스에이투데이지가 18일 보도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종교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노인들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기도나 명상을 하는 노인들보다 사망 확률이 50%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이유에 대해 페리코 교수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이며, 어떤 종교의 기도나 명상도 모두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영우 기자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생긴다

내년 2개학과 운영 지역의 스님과 재가자의 재교육 기관으로 활용된다. 또한 서울캠퍼스에 개설되는 영상정보통신대학원은 전문대학원으로 영상제작학과·멀티미디어공학과·네트워크학과 등 3개 학과를 개설한다. 이 대학원은 영상 및 정보통신 기업체와 산학협력체를 구성, 인턴쉽과 같은 현장 중심의 교육 체계로 운영한다. 동국대는 95년부터 영상정보통신 분야를 대학의 특성화 영역으로 설정하고, 지금까지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다. 오종욱 기자

정혜사·통신원불자회 화천서 호국위령제

서울 정혜사(주지 도현)와 BBS 교통통신원불자회(회장 이상희)는 23일 강원도 화천 승리부대에 호국위령제와 신병교육대장 장수계법회를 봉행하고, 승리전망대에서 남북통일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 참가한 정혜사 신도와 교통통신원불자회 회원들은 중부전선 내 군법당 장병들을 위문하고 승리전망대에서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낭독하기도 했다. 김재경 기자

21세기 정보사회를 이끌어 갈 첨단 방송 매체인 위성방송이 9월이면 사업자 선정을 마친 후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안방 시청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하지만 개신교는 한발 앞서 특정 지역 유선방송을 통해 선교 위성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통합방송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방송 서비스는 '특정 이익을 가진 집단이나 신념 또는 사상을 지지·옹호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송신할 수 없다는 유선방송관리법에 저촉돼 법으로 제할 수 없었다. 그러나 통합방송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는 선교 위성방송을 막을 아무런

법조항이 없어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타종교의 위성방송을 막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계에 위성 포교방송을 할 방송국이 없다는 데 있다. 개신교는 현재 3~4개의 위성방송을 통해 안방을 파고

못하는데 무슨 위성방송이라는 비아냥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타종교가 급변하고 있는 방송 환경에 대처하며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선교하고 있는데 불교계만 강 건너 불구경할 수는 없다. 영상 콘텐츠만 많이 확보한다면 투자 비용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불교TV나 불교인

목탁소리

김주일 (취재2부 기자) 듣고 있다. 하지만 교계에서는 위성방송 사업에 대한 필요성만 느끼고 있지 구체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단체는 전혀 없다. 올해 초 모종당에서 사업계획을 마련한 적은 있지만 최소 30억 원~40억 원이나 되는 초기 투자 비용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상태. 일각에서는 케이블TV인 불교TV도 아직 정상화시키지

교계, 위성방송 무관심

터넷TV가 확보하고 있는 기존의 많은 영상 콘텐츠를 잘 활용해 컨소시엄 형식을 취한다면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위성방송이 출범하기도 전에 방송을 송신하고 있는 타종교 방송을 막지 못해 발만 동동 구름 것 아니라 위성방송 포교의 구체적인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jikim@buddhania.com)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 사업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정가적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알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치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普行하시는 스님
지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을
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회의
서울 「장뇌산삼」 사업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가 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자 내용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괘만다라 책자의 신비
-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내용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요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